

# 미국 상·하원 의원 5명 또 대만 방문

### 펠로시 방문후 11일만에 차이잉원 등 지도자 면담 중국 "내정간섭" 강력 반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 중 간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14일 또다시 대만을 찾았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주대만미국협회(AIT)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 5명이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만행에는 민주당 소속인 존 개러멘디, 앨런 로언술, 돈 바이어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아우무야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 하원 의원이 동행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 타이우안 공항에 도착했고, 다른 네 명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미군 C-40C 전용기편으로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외교위의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 마키 의원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대만으로 떠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대표단은 현지 차이잉원 대만총통 등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과 대만 관계, 지역 안보, 무역·투자,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AIT는 전했다.

이들의 대만행은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이 1박 2일 일정을 보내고 3일 대만을 떠난 지 불과 11일만에 이뤄진 일이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미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대만을 향해 고강도의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과도 8개 항의 대화·협력 단절을 선언하는

등 미중 관계 역시 극도로 경색됐다.

반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체 방위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이 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되려 대만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 구실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AIT는 성명에서 마키 의원 등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이 군사 훈련을 통해 대만 해협과 역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와중에 이뤄졌다"며 "대만을 향한 미 의회의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키 의원실도 성명을 내고 이번 방문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 의원들은 미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방문은 미국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원치 않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양측간 충돌을 유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매체들은 마키 의원 일행의 대만 방문 소식을 전하며 "미국 의원들이 또 미 군용기를 타고 중국 대만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당시에도 군용기를 이용한 점에 주목하며 비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 신광재경은 이날 "최근 미국 정치인들이 대만 지역을 빈번히 방문해 대만독립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인 존 개러멘디, 앨런 로언술, 돈 바이어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아우무야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 하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쑹산 공항에 도착해 쉬유뎬 대만 외교부 북미국장(가운데)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르웨이 당국이 지난 14일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안락사 시킨 바다코끼리 '프레야'가 안락사를 앞두고 정박한 보트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노르웨이 오슬로의 바다코끼리 몰려드는 구경꾼에 결국 안락사

### 당국 "사람에 해 끼칠 가능성 높아"

노르웨이 당국이 오슬로 피오르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구경꾼을 끌어모았던 바다코끼리 '프레야'를 안락사시켰다고 AP 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레야는 600kg 무게의 암컷 바다코끼리로 지난달 17일 오슬로 해안에 모습을 드러낸 후 정박한 보트에 올라타거나 해안에서 햇볕을 쬐며 휴식하는 모습으로 큰 화제를 모은 북극 동물이다. 노르웨이 어업국은 사람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프레야를 지난 14일 오전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어업국은 "지난주 현장 감시를 통해 대중이 바다코끼리와 분명한 거리를 두라는 권고를 무시해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이에 따라 당국은 바다코끼리가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동물복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프랑크 바케-엔슨 국장은 프레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대중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동물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그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프레야는 그간 육중한 몸을 움직이며 보트를 파손하고, 오리와 백조를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극에 사는 멸종위기종이 도시 해안에 자리를 잡자 이를 보려는 인파가 줄을 이었고, 일부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구경꾼은 프레야와 반드시 거리를 두고 근처에서 수영이나 카약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 미국 시카고 놀이공원에서 또 충격 사건...3명 부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14일(현지시간) 충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공원 대변인에 따르면 충격은 레이크 카운티 거니 지역에 위치한 놀이공원(Six Flags Great Escape)의 외곽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총알은 주변의 한 자동차에서 발사됐다. 부상자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충격은 오후 7시 50분께 있었다.

이 공원은 독립기념일이었던 올해 7월 4일 퍼레이드를 노린 충격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던 시카고 하이랜드파크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있다. /연합뉴스

### 사우디 왕자 소유 투자사, 리 기업들에 투자

### "가스프롬 등에 68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 소유의 투자회사인 킹덤 홀딩스가 지난 2~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를 전후해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킹덤 홀딩스는 1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 3년간의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킹덤 홀딩스는 2월 22일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에 13억7000만리알(4700억원),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에 1억9600만리알(681억원)을 투자했다. 러시아 최대 민간석유기업 루코일에도 2월 22일부터 3월 22일 까지 4억1000만리알(1426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2~3월 이 세 기업에 투자한 규모는 총 19억7600만리알(6872억원)에 이른다.

투자 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와 맞물린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이후 서방은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임원들을 제재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0개 비(OPEC) 산유국 모임인 OPEC플러스(+)를 이끌고 있다. 킹덤홀딩스는 사우디 억만장자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1980년 설립한 투자회사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지난 5월 킹덤홀딩스 지분 16.9%를 인수, 현재 빈 탈랄 왕자는 78.1%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베트남, 1500km 고속철도 건설 재추진

### 공사비 최대 77조원 투입

베트남이 77조원을 들여 1500km 길이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총길이 1545km의 고속철도 건설 방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사비는 최대 587억달러(76조7000억원)로 예상된다.

베트남 교통부는 이 계획을 공산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에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먼저 2032년까지 247억 달러(약 32조3000억원)를 투자해 665km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전체 구간은 2045-2050년 완성을 목표로 정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제조업 허브로 자리 잡은 베

트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도 수년전부터 준비해왔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경제 중심지인 호찌민시 투티엠역까지 1545km 구간에서 시속 320km인 고속철을 깔면 5시간 17분에서 6시간 50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말 베트남 철도 프로젝트 관리위원회가 교통부에 제출한 고속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20개 지방성을 거치면서 몇 개 역에 정차하느냐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진다. 당시 일반 철도 기준으로는 24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계획에서 고속철도 건설 비용은 정부가 80%, 민간이 20%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